

2025년, <백년교회>가 되는 원년

01/12/2025

작년 필리핀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미국팀은 며칠 서울 을지로의 한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호텔 앞에 오래전에 갔던 단골식당이 있어서 오랜만에 갔습니다. 예전 그대로의 맛이었습니다. 그 식당은 시작한 지 50년이 넘은 식당인데도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뉴욕에서 새로운 식당이 시작되면 처음에는 손님이 북적이고 맛도 좋고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맛도 변하고 손님들도 줄어드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변하지 않는 맛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깊게 보면 영업주의 영업 방침의 차이로 보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오래 동안 잘 되는 식당들을 보면 영업주가 마치 사명감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서울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백년가게>란 것이 있습니다. 음식점에도 이런 지정을 받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음식점 수가 10만 개가 넘는데 그중에 123개(2024년 기준)가 지정을 받았으니 비율로 보면 0.001% 조금 넘습니다. 이런 식당들의 <백년가게> 선정 기준은 첫째, 30년 이상의 꾸준한 업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영업주가 계속 혁신적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셋째, 음식과 서비스의 차별화를 가져야 합니다. 넷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매출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업소라야 합니다. 이런 선정 기준으로 선정된 <백년가게> 음

식점의 상관성을 역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식당들은 오래된 역사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맛을 유지하며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며 손님을 끌었습니다. 또한 사명감 있는 영업주는 변함없는 맛을 유지하기 위해 늘 연구하고 발전해 왔으며, 지역 사회와의 관계도 좋게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한 음식점이 되는 현재의 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울림교회가 <백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구의 수백 년 된 교회들이 예배당만 남았거나 그 예배당도 유지하지 못해 다른 용도로 건물을 팔고 사라지는 그런 오래된 교회가 아니라, 1세기 신약교회가 박해의 300년을 거쳐 결국 4세기에는 로마 제국의 항복을 받아내었던 것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 중에서 이런 교회는 손꼽을 만큼 적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2025년은 새로이 시작하는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치 1년을 목회하듯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내가 처음 믿는 그 첫 해인 것처럼 금년 한 해 그렇게 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백년 교회의 초석을 놓은 금년이 되도록 말입니다.